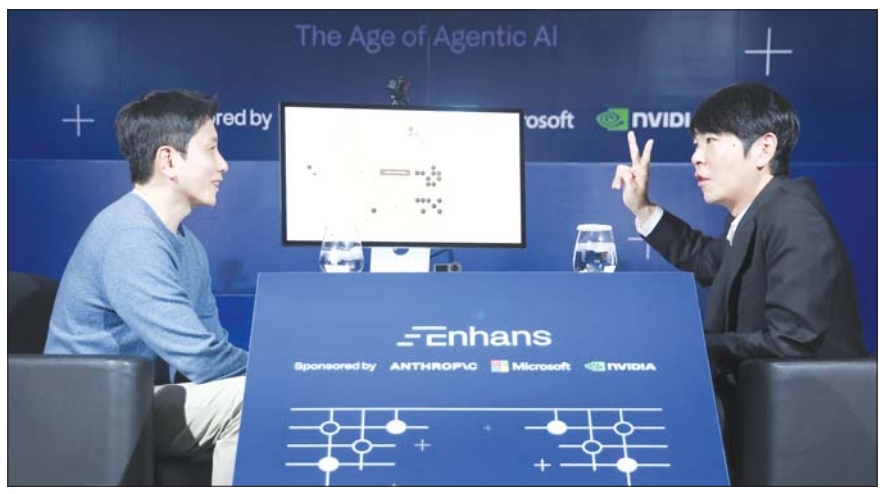
이세돌, 직접 만든 AI와 10년 만의 대국 펼쳐

스타트업 인핸스, AI 에이전트 시연
이세돌, 바둑 모델 직접 설계 진행
"과거 알파고 수준 넘어서" 평가
인핸스 "지금 AI는 협업 파트너"



바둑기사 이세돌 9단(오른쪽)이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AI 스타트업 인핸스가 주최한 '에이전틱 AI 상용화 글로벌 캠페인'에 참석해 에이전틱 AI로 제작한 바둑모델을 시연하며 이승현 인핸스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지난 2016년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AI) 모델 알파고와의 '세기의 대결' 10주년을 맞아, 이세돌이 다시 한 번 AI 앞에 섰다. 이번에는 AI 에이전트를 이용해 직접 새로운 바둑 모델을 실시간으로 재구성하고, 직접 대국까지 했다.

9일 AI 스타트업 인핸스는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이세돌 9단과 함께 '시작된 새시대(New Era Begins)' 행사를 열고 AI 에이전트를 시연했다.

이세돌 9단은 지난 2016년 3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바둑 AI 프로그램 '알파고'와 5판의 대국을 펼쳤다. 바둑은 경우의 수가 10의 170승에 이르는 만큼 알파고가 이를 모두 계산해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알파고는 정책망과 가치망을 결합한 알고리즘으로 탐색 범위를 줄였다. 그 결과 4대 1로 알파고가 이세돌 9단에게 이겼다.

다음해 알파고는 당시 세계 랭킹 1위였던 중국의 커제 9단과의 세차례 대국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로써 이세돌이 거둔 1승은 인간이 AI에게 이긴 유일한 대국이 됐다.

이번 시연에서 이세돌 9단은 인핸스 솔루션으로 음성 명령을 통해 바둑 모델을 직접 설계·실행했다. 모델 실력 수준을 설정하거나 대국 흐름을 실시간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바둑 AI를 구동했다.

시연에 앞서 이세돌 9단은 이승현 인핸스 대표와 함께 바둑에 관한 대화를 나눴고 인핸스는 이를 실시간 회의록으로 작성했다. 이어 회의록을 기반으로 AI 바둑 모델 기획안을 제작했고, 이세돌 "밝은 스타일로 해줘" "1번 스타일로 해줘" 등 9단의 음성 지시에 따라 AI OS와 바둑 모델을 구성했다. 제작은 코딩 에이전트, 디자인 에이전트 등에 필요한 요소들을 분배, 개발했다.

바둑 프로그램은 수 분에 걸쳐 완성됐고, 이세돌 9단은 바둑 프로그램과 시범 대국을 펼쳤다.

이세돌 9단은 "(직접 만든 AI모델은) 과거 알파고 수준은 넘어선 것 같다"며 "현존하는 최고의 AI는 아닐지라도 인간이 이기는 것은 아주 어려운 수준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0년 전만 해도 대결을 펼쳤는데, 지금은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알파고와 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바둑을 즐길 수 있다니 상상조차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인핸스 AI OS는 하나의 AI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 아닌 여러 전문 AI 에이전트가 협업해 문제를 해결하는 멀티 에이전트 구조다.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컴퓨터 유징 에이전트(Computer Using Agent), 온톨로지, 기획 에이전트가 동시에 작업을 수행한다. 현재 인핸스 AI OS를 구성하는 핵심 기능인 코딩, 디자인, 웹검색, 쇼핑, 기획 등은 실용화 단계로, '커머스 OS'에 통합돼 서비스된다.

이승현 인핸스 대표는 "지금 AI는 인간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협업 파트너"라며 "앞으로 인핸스의 핵심 기술인 온톨로지, 에이전틱 AI, 대형언어모델(LLM)을 표준화해 전세계 기업이 에이전틱 AI와 협업할 수 있는 AI OS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KT

미사용 회선 직권해지

KT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장기 미사용 회선을 직권해지한다. SK텔레콤도 장기 미사용 회선에 대해 이용정지 및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약관 개정에 나선다.

KT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일시정지 기간을 초과했거나 장기 미사용 상태인 휴대전화 및 스마트기기 이용계약을 해지한다.

이번 직권해지 대상은 지난 2023년 3월 이전에 정지를 신청한 뒤 현재까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회선들이다. 번호 유지를 원하는 이용자가 있다면 오는 25일까지 대리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사용 의사를 밝혀야 강제 해지를 면할 수 있다.

KT 관계자는 "미사용 회선 대상을 타인이 사용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고객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약관에 따라 직권해지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NHN

새로운 브랜드 디자인 세계 3대 어워드 석권

NHN이 글로벌 디자인 시상식에서 잇따라 수상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했다.

NHN은 9일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6'에서 브랜드 디자인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으로 NHN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IDEA 디자인 어워드에 이어 iF 디자인 어워드까지 석권하며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NHN은 이번 시상식에서 브랜드 리뉴얼 프로젝트로 본상을 받았다. NHN은 지난해 브랜드 정체성을 새롭게 정비하면서 로고와 색상 체계, 디자인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의 단순한 로고 중심 브랜드에서 벗어나 서비스와 기술 기업 이미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통합 디자인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최빛나 기자

SKB, 블루핸즈 매장 814곳에 디지털 사이니지 선배

전국 매장에 'B tv 온애드' 구축
대기시간 활용 고객 안내 기능 강화

블루핸즈 매장에 방문한 고객이 SK브로드밴드 'B tv 온애드'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SKB

SK브로드밴드는 현대자동차 공식 차량정비 서비스 네트워크인 블루핸즈와 협력해 전국 814개 블루핸즈 매장에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B tv 온애드'를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회사 측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4일 블루핸즈 대표들로 구성된 현대가맹점협동조합연합회, 디지털 광고 기업 인크로스와 함께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B tv 온애드'는 IPTV 서비스 'B tv'와 디지털 사이니지를 결합한 사업장용 미디어 서비스다.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차량 정비 현황과 순서, 차량 관리 정보 등을 화면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기존 블루핸즈 매장의 디지털 사이니지를 대체해 매장 내 고객 안내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차량 정비 진행 상황과 관련 정보를 화면으로 안내해 대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장 운영 측면에서는 공지사항과 이벤트 안내 등을 화면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관리 화면에서 레이아웃을 설정하고 콘텐츠를 편성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SK브로드밴드는 이와 함께 고객 유선전화 이력을 관리하는 고객관계관리(CRM) 솔루션과 통화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해 요약하는 'AI 비즈레코딩' 등 업무 지원 서비스도 블루핸즈 매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 사이니지 기반 광고 운영은 인크로스가 맡는다. 인크로스는 동영상 광고 플랫폼 '다윈'을 'B tv 온애드'와 연동해 매장 환경에 맞는 광고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왼쪽부터)김세웅 카카오 AI 커뮤니케이션 성과리더, 장준혁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주한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최종현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신진우 KAIST ICT 석좌교수, 이주호 KAIST 김재철AI대학원 교수, 김승룡 KAIST 김재철AI대학원 교수가 AI 협력 프로그램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카카오

카카오, 학계와 AI 연구 생태계 확대한다

AI 협력 프로그램 '카나나 스칼라'

카카오가 학계와 협력하는 인공지능 연구 프로그램을 출범했다.

카카오는 9일 대학 연구자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AI 협력 프로그램 '카나나 스칼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카카오의 AI 모델 '카나나'와 관련된 기술 연구를 학계와 함께 진행하기 위한 산학 협력 프로젝트다. 대학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이 참여해 자연어 처리와 대규모 언어 모델 등 다양한 AI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카카오는 프로그램 참여 연구자에게 연구 지원금과 데이터, 기술 자문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연구 성과는 논문과 기술 개발 형태로 발표될 예정이다.

기업과 학계가 협력해 AI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 널리 활용되는 모델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AI 하이라이트'로 WBC 주요장면 자동생성

콘텐츠 제작속도·효율성 향상
스포츠 팬 콘텐츠 소비 방식 변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개막과 함께 스포츠 산업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스포츠 중계와 콘텐츠 플랫폼 기업들이 경기 주요 장면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AI 하이라이트' 기술을 잇따라 도입하며 새로운 팬 경험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핵심 장면을 자동으로 편집하는 기술을 통해 스포츠 콘텐츠 제작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이다.

AI 하이라이트는 경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요 장면을 자동 선별하고 영상을 편집하는 기술이다. 투구 상황과 득점 장면, 경기 흐름 변화 등을 분석해 핵심 플레이를 빠르게 추출한다. 이를 통해 경기 직후 주요 장면을 정리한 하이라이트 영상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

기존 스포츠 중계에서는 사람이 직접 주요 장면을 골라 편집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AI 기술을 활용하면 경기 종료 직후 하이라이트 영상을 자동 제작할 수 있어 콘텐츠 제작 속도와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다.

최근 스포츠 데이터 기업과 방송 플랫폼들은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경기 기록과 영상 데이터를 결합해 다양한 형태의 하이라이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 전체 흐름을 분석한 요약 영상부터 특정 선수 중심 하이라이트까지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AI 기술은 스포츠 팬들의 콘텐츠 소비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용자들은 전체 경기를 시청하지 않아도 주요 장면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네이버웹툰

글로벌 동시 연재로 창작자 수익구조 개선

네이버웹툰이 글로벌 동시 연재 전략을 통해 창작자 수익 보호 효과를 확인했다.

네이버웹툰은 9일 주요 작품을 한국과 해외 플랫폼에서 동시에 공개하는 '글로벌 동시 연재' 전략을 확대하면서 창작자 수익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시 연재는 한국에서 연재되는 웹툰을 해외 플랫폼에서도 같은 시점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국내 연재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 해외 플랫폼에 번역본이 공개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작품은 비공식 번역이나 불법 공유가 발생하면서 창작자 수익 감소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네이버웹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작품을 글로벌 플랫폼에서 동시에 공개하는 전략을 도입했다. /최빛나 기자